

“광주교육, 이재명 정부 발맞춰 한 단계 도약”

‘취임3주년’ 이정선 시교육감

기초학력 증진·상급학교 진학률 향상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등 성과
내년 2월 오치동에 ‘광주AI교육원’ 개소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다양한 실력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6일 시교육청 본청 대회의실에서 ‘3년의 실력,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사진>

이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최대 성과로 ▲초등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 감소 ▲수능 성적 반등 및 상급학교 진학률 향상 ▲직업계고 경쟁력 구축 등 3가지를 꼽았다.

지난 2022년 8명에 불과했던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3년 만에 10배 이상 확대하고, 기초학력지



원센터 운영 등에 적극 나서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 미만으로 감소했다.

눈높이 공부방 ‘365-스터디룸’, 최신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1고교 1대입 전문디렉터’ 등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수능 중상위권 비율 증가, 하위권 감소 등의 성과를 이뤘다.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빈번했던 직업계고는 학

과 개편, 광주형 마이스터고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입학 지원율이 1.27대1로 뛰어올랐다.

이 밖에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빨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실 ‘AI팩토리’를 15 8개교에 구축했으며,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 무상 보급, 교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 등을 추진했다. </김다이 기자>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가등급’,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 9개 분야에서 모두 최고 평가를 받는 평가도 이뤘다.

오는 7월 1일자로 본청에는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해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을 더욱 충실히 살필 예정이다. 수학·과학교육을 강화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들고, 2026년 2월 북구 오치동에 전국 최초로 AI 교육 종합기관 ‘광주AI교육원’을 개소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새 정부에 ▲학생 마음건강지원 센터 건립 ▲미래 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설립 ▲학생 전용 K-컬처 공연장 마련 ▲글로벌 청소년 종합스포츠센터 구축 ▲5·18정신 현법 전문 수록 ▲전국 학교 5·18 교육과정 의무 편성 등 6 가지 광주 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정성으로 쌓은 실력을 광주교육의 든든한 힘이 됐다”며 “광주 교육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광주 교육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어린이집 소방안전점검

26일 광주 북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우산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플릴식증독 예방과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주말·휴일 ‘33도’ 무더위…곳곳 소나기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 가능성

천동·번개 동반 비 최대 50mm

이번 주말·휴일 광주·전남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곳곳에서 소나기도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7일 광주·전남 최저·최고기온은 18~32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덥겠다.

28일부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당분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장은정 기자>

특히 28~2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0~33도까지 오르면서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처음으로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8일 늦은 오후 광주·전남 일부에는 천동·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50mm로 짧은 시간 집중호우 형태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장은정 기자>

2022년 광주·전남 암 발병 감소…생존율 상승

1만8천848명 암 진단…전년比 278명 ↓
광주 ‘갑상선암’ 최다…전남 ‘폐암’ 많아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전남 신규 암 발생 환자가 다소 줄고 상대생존율은 10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화순전남대병원과 광주·전남 지역 암 등록본부가 발표한 ‘2022년 광주·전남 암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해 광주·전남 신규 암 환

자는 총 1만8천848명으로, 2021년 기준 1만9천126명보다 278명 감소했다.

같은 해 광주에서는 갑상선암 발생 환자가 9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792명), 위암(717명), 유방암(757명), 폐암(748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폐암 환자가 1천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1천322명), 위암(1천236명), 갑상선암(1천144명) 등의 순이었다.

2018~2022년 진단 기준 5년 상대생존율은 광

주가 73.9%, 전남이 66.7%로 집계됐다. 10년 전 대비 각각 4.6%포인트(p), 6.8%p씩 생존율이 상승했다.

다만 췌장암과 담도암, 폐암 등은 여전히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광주는 전립선암(519명), 전남은 폐암(1천123명)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성은 광주와 전남 모두 유방암(광주 754명, 전남 861명)이 가장 많았다.

광주 지역 남성은 전립선암·위암·대장암 등

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암종이 증가, 전체 남성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검진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남은 전국 평균에 비해 폐암 발생 비중이 높다. 특히 전남 지역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종은 2014년 이후 줄곧 폐암이었다.

김형록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 암센터 소장은 “전반적으로 암 생존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췌장암과 담도암처럼 예후가 나쁜 암에 대해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 등록통계는 암 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 자료를 수집·분석, 매년 2년 전 기준 암 발생률·생존율을 산출한다. </기수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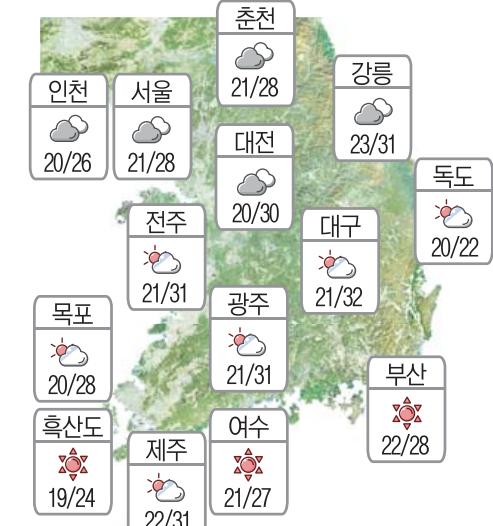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뜨 05:20 해짐 19:51 달뜰 06:47 달짐 21:46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21/31	장성	구름조금	19/32
목포 구름조금	20/28	보성	구름조금	19/29
여수 맑음	21/27	함평	구름조금	20/30
나주 구름조금	19/31	순천	맑음	21/31
완도 맑음	20/30	영광	구름조금	20/30
구례 구름조금	20/32	진도	구름조금	20/28
강진 구름조금	20/30	흑산도	맑음	19/24
해남 구름조금	20/29	고흥	맑음	19/30
광양 맑음	21/32	담양	구름조금	20/31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앞바다	0.5~0.5	0.5~1.0
서해 면바다(북)	0.5~1.5	0.5~1.5
남부 면바다(남)	0.5~1.5	0.5~1.5
일바다	0.5~0.5	0.5~0.5
남해 면바다(동)	0.5~1.0	0.5~1.0
서부 면바다(서)	0.5~1.0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03:37	08:49	10:18	04:19	10:52	05:36	
목포 15:27	20:45	22:59	16:19	23:39	17:18	

●생활정보지수



●주간 날씨

28일(토)	29일(일)	30일(월)
구름조금	맑음	구름많음
7월1일(화)	2일(수)	3일(목)
구름조금	구름조금	구름조금
▶날씨안내: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차지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무안군

광고문의 : 062)650-2099